
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배포일시	2019. 7. 19(금) / 총 3 매(본문 3매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현정, 사무관 김진우, 주무관 김형민 (☎ 044 - 201- 3944, 4641)
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실		• 실장 정시교, 연구원 김은지 (☎ (031) 389-6470, 6374)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2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2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-진흥원 맞손, 철도부품 국산화 및 동반성장 가치 실현

- 국토부 연구개발(R&D) 통해 중소기업 개발한 핵심 철도부품 → (주)SR이 구매
- 자동연결가오일뎀퍼 등 3개 품목에서 총 648억 원 수입대체 효과 창출
- 철도차량생태계 동반성장 가치 실현-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 이하 '진흥원')은 국가 연구개발(R&D)*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철도부품을 고속철도 운영사인 (주)SR이 구매하기로 협의되었다고 밝혔다.

* '18년에 종료된 "철도 핵심부품 및 장치기술개발 2단계" 과제

- 이번에 선정된 총 3개 품목의 구매계약 체결 시 국산 철도부품 해외진출 토대 마련 및 648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 대기업 위주의 국내 철도차량 생태계 내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산화 부품 구매는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미도 갖는다.

<구매 협약된 3개 품목 리스트>

부품명	원제작사	국내 개발사	수입대체효과
오일댐퍼 12종	Koni(네덜란드)	(주) 만도	254억원
윤축베어링	NSK(일본)	(주) 베어링아트	202억원
자동연결기	Schaku(독일)	(주) 유진기공	192억원

사 진			
	오일댐퍼	윤축베어링	자동연결기
부품명	외부충격 완충장치 (대차, 차축, 차체 간)	차륜이 원활하게 회전하도록 지원	중련 연결
용 도			

□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'13년부터 국가 연구개발(R&D)인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추진하여 KTX-산천의 국산화 등 총 1조 7,600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.

○ 기술개발을 통해 터키·호주·인도네시아 등에 철도차량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부품은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,

○ 이러한 해외 독점 부품에 대한 의존은 철도부품 납품 단가 상승, 사후조치 및 성능향상 곤란 등 안전성과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.

* 철도차량은 25,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다부품산업으로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차량뿐 아니라 철도부품 동반 발전이 필요

○ 이에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철도 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총 14개의 철도부품 R&D 과제를 진행한 바 있다.

□ R&D 과제 종료 후 부품의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 시험 및 납품실적 부재로 국내·외 수요처를 발굴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구매협약이 부품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진흥원은 실제차량 시험방안, 품목별 시험계획 등을 수립·시행한 후 올해 말 (주)SR에 개발품의 구매를 요청할 계획이며,
 - 구매가 요청된 부품들은 오일댐퍼(‘20.8), 윤축베어링(‘20.10), 자동 연결기(‘21.5) 순서로 입고되어 각각 2개월 후에 시험을 위하여 실제 철도차량에 설치될 예정이다.
- (주)유진기공산업 김기남 이사는 “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납품실적 부재로 국내·외 시장진출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, 이번 협의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 말했다.
-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“이번 협의는 중소기업에는 부품시장 진입과 수출토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, 운영사에는 비용절감 및 원활한 부품공급처 확보 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”이라며,
- “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에 기여할 상생·협력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김진우 사무관(☎ 044-201-3944)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